



‘역대 최고령 등판’ 앞두고 자진강판▶▶▶ 최영필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 오랜세월 버텨준 어깨와 팔꿈치 고생 많았다”

최영필은 1997년 현대에 입단한 뒤 21년간 프로 마운드에서 버텼다. KBO리그 역대 최고령 투수를 눈앞에 두고 그는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라며 자진강판을 결정했다. 작은 사진은 현대~한화~SK 시절의 모습(왼쪽부터), SK 시절은 아들 최중현(현 경희대)이 제물포고에 다닐 당시 사상 최초로 프로에서 부자 선수가 되는 꿈을 키우기도 했다.

1차지명 현대서 쓴맛 후 엄청난 훈련
21년 선수생활 원동력이 됐죠
‘타자 못 이길때 옷 벗는다’ 나와의 약속
5월 말 NC전 등판 후 은퇴 결심
최고령 등판 아쉬움? 인생은 미완성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더니, 그와의 이별 역시 예상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여기까지는 이상, 어쩌면 역대 최고령 1군 등판 기록을 세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랬기에 그의 갑작스런 퇴장 소식은 다소 황망했다. 더군다나 시즌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즌 도중이어서 더더욱 그랬다. 9일 KBO에 웨이버 공시 신청을 통해 은퇴를 알린 최영필(43). 1997년 현대에 입단한 뒤 21년간의 프로 마운드를 스스로 정리했다. 누구 못지않게 우여곡절로 굽이쳤고, 누구 못지않게 절절한 사연으로 점철됐던 야구인생. 그 지난했던 세월을 그냥 묻어버리기에 아쉬웠다. 은퇴 발표 후 일주일 가까이 흐른 시점. 수원 집에서 쉬고 있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21년 선수생활 마감, 이제는 실감
-은퇴를 결정할 지 일주일 정도 지났다. 어떻게 지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온 몸이 알콜이어서, 하하. 농담이고... 구단에 ‘잠시 쉬겠다’고 하고 수

원 집에 올라와 있다. 그동안 많이 응원해주셨던 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이제 실감이 나는가.
“좀 편해졌다. 아침에 편하게 늦잠을 자는 게 달라졌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해 30년 이상 운동만 했는데 몸이 근질근질해지고 있다.”
-막상 야구를 그만둔다고 하니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
“가족과는 사실 그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 나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다. 집사람은 그냥 ‘그동안 고생했어’라고 하더라. 아들은 별 다른 내색을 하지 않더라.”
-아들(중현)이 경희대 3학년에 재학 중인데, 예전부터 프로에서 부자가 같이 선수생활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들이 고등학교(제물포고) 졸업하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말했던 건 고졸로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였다.(웃음)”

●현대 시절의 쓴 맛이 내 인생의 보약
-수원 유신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1997년 현대에 1차지명으로 입단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그때 나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다. 현대에서 스프링캠프 시작할 때는 4선발, 5선발 경쟁을 하다가 결국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가

나를 가장 많이 바꿔 놨다.”
-무엇이 바뀌었나.
“아마추어 시절에는 솔직히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안 해도 톱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대에서 쟁쟁한 선배 투수들과 후배 김수경 등에게 매번 밀리고 꺾이면서 나를 냉정하게 봤다. 그때부터 연습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것 같다. 그때 몸이 여기저기 좋지 않았지만 어깨 훈련만큼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했다. 내 어깨가 20년간 버텨준 원동력이 됐다. 인생에 약이 됐던 시절이다.”
-2011년 시즌 중반 한화로 트레이드 됐다. 이후 빛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역할을 했다.
“한화 10년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거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야구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노(No)’라고 하지 않았다. 팀이 필요하면 선발이면 선발, 중간이면 중간, 마무리면 마무리를 했던 시절이다”
●FA 미야, 멕시칸리그, 독립리그...
-2010시즌 후 한화에서 FA(프리에이전트) 선인을 했지만 미야가 됐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멕시칸리그까지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캠프에 합류해서 테스트를 봤다. 그쪽에서 나에게 원하는 건 시속 90마일(144km)이었다. 우리도 치면 캠프 시작 단계였는데, 3개월을 하고 내용은 나쁘지 않았는데 1마일을 못 올려 인연이 안 됐다.(웃음)”

-그리고 일본 독립리그로 갔다.
“포기할 수 없었다. 연습이야 혼자 할 수 있지만, 실전이 필요해 팀을 찾았던 것이었다.”
-1년의 유랑 끝에 SK 유니폼을 입었다.
“은퇴를 결심하고 나니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더라.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다름 아닌 SK에 입단해 첫 등판을 했을 때다. 5월(30일)에 첫 복귀전을 치렀다. 원래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의 긴장감은...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나 혼자 고집을 부려서 포기하지 않고 복귀를 했기 때문이다.”
-SK에서 쓸쓸한 활약을 하다 2013시즌 후 다시 방출됐다.
“이때도 가까운 사람들마저 ‘이제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런데 나 혼자 또 ‘된다’면서 KIA에 들어갔다. 그때 기회를 만들어서 어쩌면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유니폼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순탄치 않은 야구인생이었다.
“내 야구인생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는 나날이 아니었나 싶다.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역대 최고령? 미련없다
-5월말에 1군에 호출된 뒤 NC전 2경기에 등판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를 결심했다.
“마운드에 올라가서 타자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옷을 벗어야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쁜 컨디션이 아니었다. 그런데 타자를 이기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자신감으로 야구 해오고 버텨오고 그랬는데 창피한 게 싫었다.”
-마지막 등판(5월31일 NC전)이 43세18일이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KBO리그 역대 최고령(송진우의 43세7개월7일)까지 갈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걸 생각하고 야구를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작년에 최고령 세이브(41세10개월30일)는 했으니까.(웃음)”
-20년 넘게 투수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안 좋은 몸 가지고 대졸로 프로에서만 20년 넘게 투수를 했으니 나 스스로 대견스럽더라. 어깨하고 팔꿈치 보면서 혼자 속으로 ‘그동안 고생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병규, 손민한, 진갑용, 강혁 등 아마추어 시절부터 한국야구사에 이름을 새겨온 1974년생 동기들이 모두 그라운드를 떠났다. 마지막 멤버 최영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천둥처럼 우렁찼던 적도, 번개처럼 빛났던 적도 없었지만 묵묵히 세월과 맞서 싸워온 최영필. 한 번도 일등은 되지 못한 그로서 역대 최고령 등판 기록을 코앞에 두고 유니폼을 벗어 아쉬움을 뱉도 하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다.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라면서.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여름철 더위와의 전쟁...감독들 ‘운용의 묘’로 승부걸어야

컨디션 관리 가장 중요할때...장마철 선발 최대 고민
승부처 판단 맨 1~2선발 더 가동...아니면 아껴야



조범현의 야구학

그라운드를 감싸는 따가운 햇살과 함께 KBO리그가 본격적인 여름 레이스에 진입했다. 야구의 종목 특성상 여름은 불청객과 같은 존재다. 열 세 없이 내리쬐는 태양은 물론 숨이 막힐 듯한 무더위,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장맛비까지.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여름은 전체 순위판도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을야구를 꿈꾸는 모든 팀들은 여름철 체력관리와 순위싸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미끄러질 경우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여름 레이스를 무사히 풀어나가는 운영의 묘에 대해 야구기자 2년차 고봉준 기자가 묻고, 조범현 전 감독이 답했다.

Q : KBO리그가 벌써 여름 레이스에 한창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찾아왔고, 장마철도 곧 눈앞인데요. 각 팀 역시 체력문제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름철엔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할까요.
A : 이제부터 상대팀과 싸움도 중요하지만 날씨

와 싸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6월 하순부터 정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습한 더위가 계속됩니다. 야외에서 경기를 치러야하는 선수들로서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장마철의 경우 경기가 들쭉날쭉 열리게 되면서 컨디션 유지 역시 어렵습니다. 연차가 쌓인 선수들은 이를 풀어나가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무티’이라고 하죠. 영양 섭취는 물론 수면과 휴식 등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름철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선수들을 보면 위 세 가지를 고루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선수들이 여름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팀에는 어린 연차의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우선 무더위 날씨에선 훈련 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이때 훈련은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에어컨 바람이나 찬 음식 역시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요새는 원정길 버스에서 대부분 얇은 외투라도 걸치게 하고 있고, 여름철 감기에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잖습니까.
Q : 그래도 지금은 고척돔을 비롯해 여러 최신식 구장들이 생겨 땀과 지열 속에서 경기하는 일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엔 대구, 무

등 등 열악한 곳에서 게임을 치르느라 옷지 못 할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텐데요.
A : 무엇보다 여름철 인조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날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하늘에선 땀방이 내리쬐고, 아래에선 지열이 올라오면서 몇 배 이상으로 힘이 듭니다. 현역시절 포수로 땀땀 고충이 더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데 프로티에에 마스크까지 쓰고 폴타임을 소화하면 체중이 3~4kg는 그냥 빠졌습니다. 특히 낮게임이나 더워헤더 경기는 말도 못합니다. 밥맛도 안 생기고, 말 그대로 죽을입니다. 장마기간도 마찬가지예요. KBO리그 초창기엔 배수시설이 열악해 외야에 개구리나 물방개가 뛰는 옷지 못 할 광경이 나오기도 했죠.
Q : 많은 팬들이 프로선수들의 보양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 일화를 들려보면 뽕, 흑염소, 장어 등 다양각색의 음식들로 체력을 보충했다고 하던데요. KBO리그 초창기와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과거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붕어, 장어, 뽕 같은 보양식을 챙겨먹는 선수들이 몇몇 있었습니까. 요새는 보양식보단 약을 신경 쓰는 선수들

이 많아졌거든요. 비타민 계통을 비롯해 프로테인(단백질),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를 라커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선수단 식사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거에도 원정길 출장뷔페는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트레이닝 파트너입니다. KBO리그 초창기엔 하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컨디셔닝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최근엔 트레이닝 파트너 선수와 코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몸 상태를 매번 확인하면서 여름철 체력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죠.
Q : 여름 레이스는 순위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도가 높습니다. 여름에 최종순위가 달려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A : 여름철 승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곧 선수들의 컨디션이 이때 떨어지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초반에 체력이나 컨디션이 다운되면 그나마 회복 기회는 많지만, 여름철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최근 삼성이 정규

리그 5연패를 할 때 보면 늘 6~8월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는 곧 선수 개개인 물론 구단 전체의 체력 관리가 잘 갖춰져 있음을 뜻합니다. ‘컨디션 싸움’이 곧 순위싸움입니다.
Q : 2009년 KIA 사령탑 시절 통합우승 당시 7월(12승6패), 8월(20승4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순위싸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시 운영의 묘가 궁금한데요.
A : 일단 6선발 체제로 전체 레이스를 이끌면서 마운드 체력 부담이 덜했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장마철 선발 로테이션 운영법입니다. 장마철엔 들쭉날쭉 경기를 치러야하니 선발투수를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감독으로서 최대 고민입니다. 여기서 팀 상황과 일정 등에 따라 선발진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느냐, 승부를 볼 것이냐 결정해야합니다. 승부처로 생각한다면 1~2선발을 더 가동시켜야하고, 후반부에 승부를 볼 생각이려면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합니다. 감독마다 운영의 묘가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정리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7048@donga.com